

한·미 교회 협의회 결산

지난 12월 2일부터 5일까지 미국 NCC와 한국 NCC의 공동 주최로 한 미 교회 협의회가 서울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열렸다. 이미 교계 신문에 수차 보도된 바와 같이 이번 협의회는 교계와 일반 사회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진행된 것인만큼 그 성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가할 만한 것이다. 우선 이번 모임은 두 나라의 NCC가 공동 주최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모임 자체가 양국의 크리스찬 정부의 의사를 대변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점을 다짐하고 지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협의회 합의 사항에 대하여 누구든지 찬부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주최 측이 언명한 성명에 따라 이해한다면 이번 모임에서 그간 양국간에 걸려있던 초급한 제반문제를 피차가 솔직 담백하게 교환하자는 데 목적이 있었다 한다. 그런데 미국측 대표 중 빌하이머박사나 볼드윈 씨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변천 배경을 역설하고 한국을 월남과 같은 수준에 놓고 이야기하는 미국내의 여론, 그리고 아시아 방위 책임을 일본에 분담시킨다는 닉슨·독트린의 배경을 한국측에 해명한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한 한국측 대표의 반응은 물론 부정적으로 반발하고 한미간의 외교 관계, 그리고 그 역사적 경위를 따지고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국제적 도의적 책임을 규명한 것이었다. 더구나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민이 과거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고루한 반일 정신을 고집하는 것으로 아는 미국측 참가자에 대해서 한국측은 시종일관하여 비판을 가한 것이었다.

즉 대 일본 경계론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문제

이며 한국의 일본 문제는 미국에 대한 무조건 의뢰가 아니라는 것이 거듭 강조되었다.

결국 한국의 일본 문제가 온 국민의 생사에 직결된 문제요, 일본의 경제적 진출에 대한 경제론에는 현실적인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미국측에 양해가 된 모양이다. 이러한 한국측의 태도는 결코 과거와 같은 폐쇄적인 그리고 독단적인 태도 복귀, 일본 자세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이 몸으로 느끼는 채운과 맥박을 직접 부딪쳐 보지 않고는 외국 사람들에게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일지 모른다. 이번 협의회는 그러한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88년간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선교사 파송이나 선교비 엄출에만 골몰했지 이러한 국가 사회 문제를 놓고 서로 마주 앉아본 예가 없었던 것이다. 이제 앞으로 이러한 만남이 자주 있어야 할 것이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교회를 통한 만남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은 대외적인 문제만을 자꾸 논하다가 막상 대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의 눈에 허술한 점을 보여 주는 일이 많다는 점이다. 이번 협의회 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한국측 대표가 한국 자체에 대한 냉철한 자아 비판의 태도,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치루어야 할 책임과 희생을 강조했다는 점은 대단히 미국측의 공감을 일으킨 모양이다. 미국측은 자기 나라 안의 흑백 문제 사회적 불안, 그리고 기성 체제에 대한 신랄한 자기 비판을 했으며, 이에 대하여 한국측도 역시 독선적인 자아 도취를 스스로 깨우쳐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겸허한 자아 비판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태도는 교회가 가지는 국제 회의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자세인 줄 안다. 자신의 자세에 대하여 자아 비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의 언동은 결코 남에게 어필할 수가 없는 법이다. 한국에 있어서의 자유의 보장은 사회 정의를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자신의 생활이 정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한 우리의 안보 문제도 여러 가지 헛점을 가지게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이번 협의회에서 거듭 강조된 사실은 뜻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제 아시아의 평화 문제 해결은 한국의 안보 문제에 직결되었고 한국의 안보 문제는 한국 교회가 이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어 느만큼 구현시키느냐 하는 데 달렸다. 우리가 바라건대 교회는 종래의 고식적인 선교 형태를 혁신하여 좀 더 적극적인 사회 정의 구현의 역군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